



지혜의 숲 작은도서관

#서울 금천구 #시설공사비 지원

아이들을 위한 곳

지혜의숲작은도서관의 나이는 올 해로 12살이 됩니다. 개관 시만 해도 지역에 도서관이 많지 않았고 지역 아이들의 문화 혜택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와 쉴 만한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숲은 태어났습니다.

지혜를 얻는 울창한 숲이자 편안한 쉼터

이곳에서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 그저 알팍한 지식이나 금방 써먹을 수 있는 정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지혜를 얻길 바라는 마음과 울창한 숲에서 쉬는 것처럼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지혜의숲도서관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열방을 위해 쓰임 받는 거목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지혜의숲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10년이 된 도서관의 출입문이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며 헐렸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도 쓸쓸했습니다. 그러한 지혜의 숲에게 긴급지원119의 출입문 공사 지원은 숨통이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은 비싼 인건비와 공사비용으로 점점 축소되었고 계획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실행 과정에서 업체와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사 후의 모습을 함께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끝나고, 예전보다 넓어진 현관과 큰 간판을 걸고 나니 새집을 얻은 것 마냥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물론 이용자도 늘었고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나무테크의 현관에서 아이들이 줄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쁜 화분을 가져다 놓기도 하며 그곳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책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현관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기쁩니다. 사실 도서관의 출입문이 헐렸을 때는 모두가 도서관이 문을 닫을 것이라 무덤덤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도서관은 우리에게, 우리 마을에게 꼭 필요한 공간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이용자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한 신규이용자는 오랜 시간 이곳에 살았어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는 줄 몰랐다면 보물을 찾은 것 같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앉고 서서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지혜의숲도 기쁩니다.



▲ 공사 전



▲ 공사 후 ①



▲ 공사 후 ②



지혜의숲은 책을 보러오는 목적성이 있는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들르는 사랑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민은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음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없어 더 많은 확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용자들도 여러 가지 바람들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분리된 공간이 없으니 책을 보고 있는 이용자 옆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책을 보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이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다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혜의숲도 어떤 시도를 해볼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지혜의숲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지혜의숲도서관은 오전에 성인 이용자들이 많아 인문학특화 도서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 인문학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영화에서 키워드를 찾고 함께 토론하며 더불어 책을 함께 연계합니다. 폭 넓은 영화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내가 찾은 키워드를 내 삶에 적용해 보며 삶이 행복한 인문학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영화를 수집하고 영화와 맞는 책을 선정 중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찌면 참 외로운 일입니다. 이용할 때는 좋고 떠날 때는 매몰차게 등 돌리는 이용자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견딤이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다면 재미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두 울고 웃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